

# 수의(壽衣) 변화의 의례적 상징성 연구

신여진\*, 이철영\*\*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 박사과정\*,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 A Study on the Ritual Symbolism of a Change in Funeral Attire

Yeo-jin Shin\*, Chul-Young Lee\*\*

Ph.D. program, Graduate School of Folklore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t a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요 약 현대 한국인의 죽음의례는 전통의례와는 다르게 ‘장례식장’이라는 의례 공간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입히는 옷인 ‘수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의례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의의 변화양상을 통해 전통인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한 유교 예서에는 ‘습(襲)’의 절차에서 고인에게 입히는 습의(襲衣)와 소렴과 대렴에서 옷을 더하여 묶을 때 쓰이는 수의(襚衣)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의례준칙>을 통해 ‘습·소렴·대렴’의 절차가 ‘습급렴(襲及殮)’으로 통합되면서, 소렴의 절차에서 고인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였고 이때 고인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襚衣)’라고 하였다. 또한 1960년대초 ‘한글전용교육’이 진행되면서 ‘수의(襚衣)’를 ‘수의’로 표기하였고,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수의(壽衣)’로 변화되면서 정착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복식인 습의(襲衣)가 수의(壽衣)로 변화되어 정착되면서 우리가 인식하는 ‘전통’이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계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수의, 습의, 유교상례, 근대상례, 현대상례

**Abstract** Unlike traditional rituals, modern Korean death rituals are carried out through ritual space caqlled a ‘funeral home’. and the ‘corpse clothes’ the last garment worn by the deceased, i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ritual element. In this study, we will discuss the perceptions of tradition through the change of the corpse clothes. There are two types of clothing used for the deceased in Confucian literature centered on "Jujagarye" and "Sugui worn by the deceased through the procedures of the custom" and corpse clothing used to add clothes at Soryom(小殮) and Daeryom(大斂). However, it was investigated that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procedures for Seup(襲), Soryom(小殮) and Daeryom(大斂) were integrated, and the clothes to be worn by the deceased were changed to "sui" through the family ritual rule in 1969 as corpse clothes continued. Through this, the last garment of the deceased, the "wet robe," was changed into the "shroud" and settled, and it is meaningful to continue the discussion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should be inherit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 that we perceive.

**Key Words** Changes in Funeral Attire, Confucian funeral rites, Modern period funeral, Modern funeral

Received 28 Jul 2024, Revised 17 Sep 2024

Accepted 30 Sep 2024

Corresponding Author: Chul-Young Le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Email: welldying88@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현대 한국인의 죽음의례는 '장례식장'이라는 의례 공간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과거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통해 유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던 상례(喪禮)는 일제강점기를 통한 법·제도적 변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장례식장에서의 의례로 변화되었다. 제도적 변화와는 달리 장례식장으로의 변화는 상례 공간의 전환은 물론 상례의 기간과 절차의 변화 그리고 장례지도사의 등장 등 참여자의 역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죽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상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의례(儀禮)는 일상생활 중의 언어나 행동 등으로는 전할 수 없는, 사회의 가치나 중대한 사건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정한 양식을 통해 행해지는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례에는 공동체가 간직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형식적 행위를 통해 사회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상징적 의미와 효력을 가지고 진행되어 진다. 이러한 의례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것은 의례에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사회변동과의 연결과정에서 그 상징적 의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인(仁)과 덕(德)의 실천을 통해 천명(天命)에 따르는 이상세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안된 유교 의례에는 유교적 전통과 형식, 상징성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례의 현재성은 시간의 변화와 사회변동을 담은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유교 의례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는 이미 공동체에 의해 해석된 상징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의례 목적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교 상례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교 생사관에 기초하여 '망자 중심'으로 이해한 논의[1]나, 상례의 현재성을 중시하여 '산자 중심'의 의례 현상으로 분석한 논의[2]가 상반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는 의례의 요소로 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염습(斂襲)'과 '수의(壽衣)'를 들 수 있다. 고인과 의 이별을 위해 목욕시키고, 마지막 옷으로 갈아입히는 염습의 절차에서 고인에게 입히는 옷인 수의는 상례의

변화과정에서 지속되면서, 의례의 변화양상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시대별 변화를 담고 있는 염습 절차와 수의에 대한 의례적 이해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죽음의례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례 절차인 '염습(斂襲)'의 과정과 이때 사용되는 의복인 '고인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옷'이라는 의미의 수의(壽衣)가 죽음의례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변동과 연계하여 진행된 의례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속생활사 연구자료와 문헌자료, 그리고 관련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의 분석을 통해 수의를 중심으로 죽음 인식과 의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현대장례에서 수의(壽衣)의 이해

민속조사에 나타난 수의에 대한 인식과 준비와 관련된 현황과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편에 따라 하였으나 반드시 하였다.

노인이 있는 집안에서는 제일 큰 일거리였다.

비용은 형편에 따라 자식들이 낸다.

윤달에 마련한다.

대소가 친척들이 모여서 하루에 마쳤다.

근래에는 밖에서 맞추어 온다.

비단이나 명주로 하였다.

색 있는 것으로 하였다.

흰 것으로만 한다.

삼베로 해야 한다.

모시는 자손 머리가 하얗게 되므로 쓰지 않고, 명주는 구더기가 나므로 안 좋다.

옷은 생존 것 보다 크게 하고, 손바느질로 하며, 매듭은 짓지 않는다[3].

이상의 글을 살펴보면, 수의 제작과 관련하여 노인이 계신 집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작의 시기로는 윤달에 제작하는 것이 관행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수의의 재료로는 주로 삼베가 사용되는데, 지역적으로는 비단이나 명주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의 제작과 관련하여 "수의 만들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시작하여, 해가 지기 전에 마치고

는데, 이는 해가 있는 낮에 만들어야 陽氣를 받아 본인이나 자손에게 좋기 때문이다. 수의 만들기는 수량이 많고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이 서로 돌아가면서 일손을 거두는 ‘품앗이’로 한다. 하루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이웃에 바느질 솜씨가 좋은 부인들이 모두 모이고, 자식들은 잔칫날처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다”[4]고 하여 수의 제작에 하루가 소요되었고,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바느질 솜씨가 좋은 이웃이나 친척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수의의 제작과정에 혈연 및 지역공동체가 품앗이로 참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상반되게 현재 한국 사회의 죽음 인식과 의례의 변화는 상업화로 축약될 수 있는데, 장례지도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례에서 수의착용과 관련된 의례 절차인 염습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장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을 모시는 입관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장례 기간동안 고인과 유가족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염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1할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모셔드리는 과정인 만큼 장례 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남, 35세)는 장례업에 8년간 종사, 상조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장례지도사로 근무 중.

“입관식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이 장례기간 동안 고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며, 마음속에 숨겨왔던 못했던 말들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있던 말들을 하며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이 남아있는 유가족에는 위로이자 치유이며, 고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가는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입관식에 수의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남○○(남, 34

세)는 장례업에 5년간 종사,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상조회사 장례지도사로 근무 중

“입관식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과 같은 자리인지라 상주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가장 조심스럽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절차의 비중으로 따지자면 50프로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염습이 유가족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이지만 눈으로 보며 만져지는 것이 또한 수의이기에 저희가 해드리는 고인의 수의 매무새라든지 옷깃 하나하나 부분까지 신경을 쓰게 되며 옷이 구겨져 생기는 자잘한 주름 하나도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유가족분들은 그런 과정을 눈여겨보시게 되고 또한 직접 만져보시고 안아보시고 느껴보시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박○○(남, 40세)는 장례업에 7년간 종사, 제단 꽃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장례지도사로 근무 중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장례지도사들 대부분이 입관을 중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일장으로 진행되는 현대장례의 과정에서 고인과 마지막 대면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유가족에 의해 진행되었던 과거의 절차와는 달리, 염습과 입관의례가 장례지도사들의 고유한 업무로 인식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례의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었던 염습과 입관에서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입히는 수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는 말 그대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입고 가실 옷이며 직접 준비했다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가족이 선택하여 비싼 수의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족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의 가격에 따라 그 마음이 덜하거나 더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시는 마음이 중요하지 비싼 옷인지, 저렴한 옷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 사람들도 본인 취향이나 사정에 따라 명품 옷이나 시장 옷을 골라서 입지 않나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 35세)

“수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과 종류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 문화가 정착한 지금은 화장에 더욱 적합한 재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수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디자인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옷감과 디자인으로 고인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수의가 나온다면 수요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남, 34세)

“수의는 저에게 약간 집마다 다른 옷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이라고 해서 좋은 수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품격과 가족애가 느껴지는 옷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전부 외제 차를 탄다고 하여 비싼 수의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낼 때, 오늘날만큼은 좋은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천사 옷 같은 물품이라 생각합니다.”- 박○○(남, 40세)

앞서 민속자료에 수의 제작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효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편안한 잠자리’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의 옷’이라는 시각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생각이 전체의 의견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5·8년간 수많은 장례의례를 수행한 전문가집단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짐작하면 이들의 견해를 통해 수의에 대한 인식이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죽음 인식과 의례의 변화는 과거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진행되었던 상례 과정이 장례로 변화된 것, 그리고 의례 수행의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장례지도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 등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전통’이라는 시각에서 의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

정에서 상례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수의에 대해 전승되었던 죽음에 대한 민속 지식은 단절되고 획일화되었다.

### 3. 수의(壽衣)의 변화와 해석적 논의

#### 3.1 수의(壽衣)에 대한 이해

현재 수의는 ‘죽은 자를 위한 옷’, ‘삼베수의’의 틀에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 상례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자가례』에는 ‘수의(壽衣)’의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죽은 자를 위한 옷으로 『주자가례』에 제시된 옷은 ‘습의(襲衣)’이다. 『주자가례』와 현재 수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먼저 연구자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란 죽은 자(亡者)가 입을 옷을 말한다. 수의의 명칭은 『朝鮮王朝實錄』에는 ‘襚衣·壽衣·復衣·衣’로 현지 조사에서는 ‘수의·머능옷·저승 옷·시집 갈 옷·죽음에 옷·호상 옷’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 학술용어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는 ‘수의’이다. 이에 대한 자료로 조선 전기에는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등이 참조되고, 일반인 것으로는 조선 후기 『四禮便覽』이 있다[4].

한편 1925년 金淑堂이 지은 『조선재봉전서』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옷과 개량형 및 서양 옷에 대한 치수와 종류를 제시한 최초의 참고서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수의에 대하여 남자는 23가지, 여자는 2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수의는 시신을 관속에 넣을 때(入棺) 입히는데 이를 ‘殮한다’고 한다. 終命 후 수세 걸었던 것을 풀고 향 물로 시신을 목욕시킨 다음 새로 마련한 수의를 입힌다. 옷은 만들면서 입히기 쉽게 아래옷은 아래옷끼리 옷웃은 옷웃끼리 모아서 꿰매둔다. 殮은 “여자는 여자 손에서 남자는 남자 손에서 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근래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하였으며, 지금은 장의사 사람들이 한다[5].

현재 한국에서 수의는 주로 삼베를 소재로 한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삼베 수의가 ‘우리의 본래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확고히 상례 문화에 자리 잡았고, 삼베 수의를 쓸 경우와 반대로 삼베가 아닌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및 인식이 만연해 있다. 즉 삼베 수의를 ‘바람직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유언비에 가까운 속설이 등장하였고, 이제는 그 속설이

믿음이 되어 삼배 수의가 확고히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본래의 우리 전통이었던 다른 소재의 수의가 점점 설 곳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6].

이러한 수의(壽衣)에 대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현재 학술용어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는 ‘수 의’”라고 한 것과 같이 민속자료에서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朝鮮王朝實錄』,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四禮便覽』 그리고 金淑堂의 『조선제봉전서』’등을 제시하여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용어로 인식되었던 ‘수의(壽衣)’에 대한 기록은 『朱子家禮』나 『喪禮備要』, 『四禮便覽』 등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예서(禮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자가례』의 상례편에서 제시된 상례의 절차는 ‘초종(初終)→습(襲)→소렴(小殮)→대렴(大斂)→성복(成服)→조상(弔喪)→문상(聞喪)→치장(治葬)→친구(遷柩)→발인(發靚)→금묘(及墓)→반곡(返哭)→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의 18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 상례의 절차 중 ‘고인에게 옷을 입히는 절차’는 1일차 2단계 의례인 습(襲)에서 보여진다. 습(襲)의 절차는 고인을 목욕시키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힌 뒤, 입에 쌀을 물리는 반함의 순서로 진행되는 의례로 이때 고인에게 입히는 옷이 ‘습의(襲衣)’이다.

『朱子家禮』 陳襲衣。‘습의를 진설한다.’

『儀禮』 「士喪禮」, 以卓子陳于堂前東壁下, 西領南上。‘습(襲)할 옷을 방안에 늘어놓되 옷깃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남쪽을 위가 되게 한다.’

『家禮會成』 襲復衣也 向去其衣今復著之 故謂之襲。이라 하여, ‘습(襲)은 다시 입힌다는 것이다. 앞에서 그 옷을 벗었는데 지금 다시 입으니 습(襲)이라고 하는 것이다.’

『儀禮』 「士喪禮」 凡襲斂之服無問尊卑 皆先盡上服生時服 卽士之常服以助祭者也。 ‘대체로 습(襲)할 때의 복장은 존비(尊卑)를 불문하고 모두 먼저 살아있을 때 입던 옷 중에서 가장 높은 복장으로 하니 살아있을 때 사(士)가 항상 입고 제사(祭祀)를 돕던 옷이다.’

『儀禮』 「士冠禮」 陳三服玄端皮弁爵弁。 ‘습(襲)에는 세 가지의 옷을 늘어놓는데, 현단복, 피변복, 작변복이다.’

그런데 상례에 사용되는 옷은 고인에게 입히는 습의 이외에도 소렴과 대렴에서도 다양한 옷들이 사용되었다. 소렴은 운명한 후 이틀째 절차로 시신의 모습을 가려 치장하기 위하여 19벌의 수의(壽衣)와 효금으로 싸서 묶는다. 대렴(大斂)은 소렴을 마친 다음 날인 3일차에 진행되는 절차로 신분에 따라 옷가지(壽衣) 수를 달리하고, 대렴금으로 묶어 관에 모시는 절차로 마치고 난 후 고인을 빈(殯)에 모시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자가례』의 侍者卒襲覆以衾의 절차에서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죽은 다음 날 소렴(小斂)을 하고 또 다음날 대렴(大斂)을 하였다. 거꾸로 된 의상을 바르게 하고 효금(絞紵)으로 묶고 금모(衾冒)로 싸서 가리는 것은 모두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옛날에는 사(士)는 습의(襲衣)가 3벌이고, 대부(大夫)는 5벌이며, 제후(諸侯)는 7벌이고 공(公)은 9벌이었다. 소렴(小斂)에는 존비(尊卑)가 모두 19벌을 썼으며, 대렴(大斂)에는 사(士)는 30벌이고, 대부(大夫)는 50벌이며, 군(君)은 100벌이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갖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간편하고 쉬운 것을 따라 습(襲)에는 옷 1벌을 쓰고, 대렴(大斂)과 소렴(小斂)에는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과 친구들이 보내준 옷(及親友所禭之衣)에 의거해서 마땅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 만약 옷이 많으면 다 쓸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서에서 ‘고인에게 입히는 옷’의 의미로 제시된 것은 ‘습의(襲衣)’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렴과 대렴의 절차에서 쓰이는 옷과 관련하여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과 친구들이 보내준 옷(及親友所禭之衣)’이라는 관점에서 ‘수의(壽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례 절차에 따른 복식의 명칭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상례에 사용된 옷의 종류

구분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옷의 종류	襲衣 1벌	襚衣 19벌	襚衣 30~100벌
비고		천민~천자	신분별

유교 상례에 사용된 옷의 종류에서 수의(壽衣)는 등장하지 않는다. 수의는 소렴과 대렴에서 시신을 감싸서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수의(襚衣)가 있었을 뿐이다.

### 3.2 수의(壽衣)의 변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했던 유교 상례와는 달리 유교식 상례의 시점은 1934년 발표된 <의례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 1929년 일제는 ‘세계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조선의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농촌진흥운동’과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의 소비와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된 유교의례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1934년 <의례준칙>이 제정·발표되었다.

#### 五. 襲及斂

死亡의翌日에 喪主及近親者若干人(男喪에는 喪主及男子, 女喪에는 主婦及女子) 幃內에서 死者의 病衣를 除去하고 衾을 覆하고 香湯으로 屍體를 洗拭하고(浴巾을 使用함) 襚衣(幅巾(女는 掩) 充耳, 幃目, 握手, 衣袴, 周衣(女는 裳), 襪)를 着케함. 此에 斂衾으로 屍體를 裹하고 棺에 納한 後 棺內의 空隙에 는 生前에 着用하던 衣服을 充墳함[7].

<의례준칙>에서 제시된 수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교 상례에서 고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3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습, 소렴, 대렴이 ‘습급렴(襲及斂)’의 항목으로 통합되면서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일정의 축소와 통합은 각 절차의 진행 과정도 변화시켰는데, 해설서에서 ‘襲이란沐浴시키는것 小斂이란 옷닦히는것 大斂이란 棺에 넣는 것을 謂함이니’라고 하여 몸을 씻는 절차를 습(襲)이라 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절차를 소렴(小斂), 입관하는 절차를 대렴(大斂)으로 왜곡하여 유교 상례의 외형을 차용하고 일정을 단축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인에게 옷을 입히는 절차’인 습

의 절차가 ‘목욕하는 절차’로 바뀌게 되면서 습의(襲衣)는 생략되고, 수의 19벌로 싸서 묶었던 소렴의 절차가 ‘고인에게 옷을 입히는 절차’로 바뀌게 되면서, 소렴에 쓰이던 수의(襚衣)가 고인에게 입히는 옷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의의 재질과 관련하여 <의례준칙> 해설서에서는 ‘襚衣斂衾은 布木等新潔한 것을 尙할것이오 綾帛錦紗等 일부러 高價의 物을 要치안을 것이며 充耳, 瞑目, 握手等은 省略함도 無妨하다’고 하여 『朱子家禮』에서 ‘습(襲)할 때의 복장은 존비(尊卑)를 불문하고 모두 먼저 살아있을 때 입던 옷 중에서 가장 높은 복장’으로 진행되었던 습의가 일제에 의해 배와 무명인 ‘포목(布木)’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제정한 <개선장례기준>은 『매일신보』 1941년 7월 30일 <改善葬禮基準>이라는 제목의 사실과 8월 2일 『改善葬禮基準의 實踐』이라는 기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의례준칙>과는 달리 <改善葬禮基準>은 총독을 총재로 하였던 ‘국민총력조선연맹’을 통해 형식상 공식적인 발표를 제한하고 예하의 조직을 활용하여 실천을 독려하였던 실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 四. 殮襲

襲衣, 殮衾은 質素清潔한 것을 쓸일. 棺은 厚板厚 漆을 쓰지 않음[8].

<개선장례기준>에서 제시한 수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수의(壽衣)나 습의(襲衣)가 아닌 수의(襚衣)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례준칙>에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4항 ‘염습’의 절차와 관련하여 ‘습급렴’이라 하여 유교식 상례의 습·소렴·대렴의 절차가 통합되어 진행되면서 그 세부적인 절차의 내용도 변경되었는데, <개선장례기준>에서는 ‘염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나의 통합된 절차로 이해되었다. <개선장례기준>에서 처음 사용된 ‘염습’의 명칭은 ‘장례’의 용어와 더불어 이후 상례 절차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시작된 유교 상례의 왜곡된 변화는 해방 후 이어진 대한민국정부의 의례통제를 통해서도 이어지게 된다. 해방 이후 의례 규범제정과 관련된 본격

적인 논의는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진행되었다. 1955년 7월 김범린 외 36인의 발기로, 준비위원 21명을 선출한 후 전국각계 대표인사 460여 명을 망라하여 구성된 ‘훈상제의례준칙제정위원회’는 연구와 심의 검토를 통해 해방 후 최초의 근대의례 통제안인 <의례규범 1>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훈상제의례준칙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의례규범 1>의 수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 五. 襲斂

死亡翌日에 亡人の病衣를除去하고 身體를淨洗  
한後 襤衣를입하여 入棺한다[9].

고 하여 앞서 <의례준칙>이나 <개선장례기준>에서 제시한 수의(襤衣)의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례준칙>에서 ‘습렴’의 절차가 <의례규범 1>에서는 ‘습렴’으로 바뀌어 ‘病衣제거 → 목욕 → 襤衣착용 → 입관’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1957년 국민실생활기준과 신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및 전시생활개선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의례규범 2>가 발표되었다. <의례규범 2>의 수의에 대한 내용은,

#### 五. 염습(斂襲)

상주는망인의 병의(病衣)를 제거정세(除去淨洗)  
하고 수의(襤衣)를 입힌후 입관(入棺)한다[10].

고 하여 국한혼용으로 발표되면서, <의례규범 1>에서 ‘습렴’으로 제시되었던 절차를 <의례규범 2>에서 변경하여 이후 ‘염습’으로 의례 절차가 정착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획득한 군사정권은 국민에게 군사혁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사회생활 규범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표준의례> 제정을 통한 의례 통제를 진행하였다. 이 중 수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입관(入棺) <염습(斂襲)>

1. 운명후(殞命後) 이십사시간(二十四時間)이  
경과(經過)하면 깨끗한 평상복(平常服)을 입히고

입관(入棺)한 후(後) 장일(葬日)까지 정결(淨潔)  
하고 소독(消毒)된 곳에 안치(安置)한다[11].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표준의례>의 수의 기사는 수의(襤衣)로 규정하지 않고, ‘깨끗한 평상복’을 착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63년 <표준의례>를 제정 공포한 지 약 2년여 만에 문교부에서 생활개선과 생활 간소화의 실천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넣어 국민운동으로 보급시키기 위해 개선된 의례 관련 규범인 <국민예절기준>을 발표하였다.

#### (13) 관과 수의

1) 관은 치수가 망인에게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된다.

매장을 할 때는 오래 건디도록 튼튼하게 짠 것이  
좋으나, 화장을 할 때는 假棺을 써도 무방하다.

2) 수의는 종래의 습관으로는 지방에 따라 삼베  
또는 명주 기타 등으로 새로 만드나 고인의 유언  
이나 가세에 따라 평소에 입던 옷을 수의로 써도  
무방하다.

3) 남녀공용

상의(저고리, 적삼), 하의(바지, 속바지), 허리띠,  
떡목, 총이, 악수, 베개, 천금, 지요, 신

4) 남자 : 두루마기, 도포, 복건, 대담, 행선

5) 여자 : 치마, 비녀, 땡기[12]

재건국민운동본부 제정의 <표준의례>에서 ‘운명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깨끗한 평상복을 입고 입관’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민예절기준>에서는 다시 이전의 의례 절차로 회귀하면서 수의(襤衣)의 명칭을 한글로 ‘수의’로 기록하고, 그 재질을 ‘삼베 또는 명주로 새로이 만들거나, 평소에 입던 옷’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초 박정희 정권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례 개선에 주목하여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였다. <가정의례준칙>에 나타난 수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2조 (입관(入棺))

운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입관한다.

1. 깨끗한 수건으로 시체를 닦아낸 다음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 의복 또는 수의(壽衣)를 갈아 입히고 입관한다.
2. 입관할 때에는 관 벽과 시체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로 채워 시체가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한다[13].

앞서 <국민예절기준>에서 한글로 '수의'라고 표기되었던 명칭이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수의(壽衣)'로 변경되면서 '고인의 깨끗한 평상복' 중에서 식물성 의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1973년 <가정의례준칙> 개정안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중요한 특징은 '수의(壽衣)'의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의례준칙> 이후 1957년 <의례규범 2>까지의 명칭은 '綈衣' 또는 '수의(綈衣)'로 사용되었고, 1963년 문교부 제정의 <국민예절기준>에서 한글의 '수의'의 용어가 사용된 이래 <가정의례준칙>에서 '수의(壽衣)'로 변화되면서 현재의 용어로 정착되었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인에게 입히는 옷'의 개념으로 '수의(壽衣)'라는 명칭이 『朱子家禮』의 '습의(襲衣)'에서 일제강점기 상례 절차의 간소화 과정에서 왜곡되어 '수의(綈衣)'로 변화되었고, 한글 '수의' 표기를 <가정의례준칙>에서 '수의(壽衣)'로 표기하면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통한 법·제도적 변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장례식장과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을 목욕시키고, 마지막 옷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인 염습의 절차와 고인에게 입히는 옷인 수의는 의례의 변화과정에서도 지속되면서 상례의 변화양상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시대별 변화를 담고 있는 염습절차와 수의에 대한 의례적 이해를 통해 현재 '수의는 곧 삼베 수의'라는 우리의 인식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민속자료를 통해 수의의 제작과정을 살펴본 결과, 최근까지도 노인이 계신 집에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작과정에 혈연 및 지역공동체가 품앗이로 참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동체적 인

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의에 대한 인식은 의례적 근대를 거쳐 현대 상례로 변화되면서 죽음 의례의 전문가집단으로 등장한 장례지도사들 역시 대부분 입관의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3일장으로 진행되는 현대 상례의 과정에서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의례적 중요성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염습의 절차를 장례지도사들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 인식하면서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의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朱子家禮』를 중심으로 한 유교 예서에서 고인에게 사용되는 옷의 종류는 습(襲)의 절차에서 고인에게 입히는 '습의(襲衣)'와 소렴과 대렴에서 옷을 더하여 묶을 때 쓰이는 '수의(綈衣)'의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을 통해 습·소렴·대렴의 절차가 통합되면서, 소렴의 절차에서 고인에게 옷을 입히도록 하였고, 이때 고인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綈衣)'라고 하였다. 1960년대 초 '한글전용교육'이 진행되면서 '수의(綈衣)'를 '수의'로 표기하였고,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수의(壽衣)'로 변화되면서 정착하게 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한국인의 죽음 의례인 '상례(喪禮)'가 '장례(葬禮)'로 변화되고, 고인의 마지막 복식이 '습의(襲衣)'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壽衣)'로 변화되어 정착되었다. 의례적 근대를 통해 형성되고 만들어진 전통이 전통문화를 대체하고,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전통'이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계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 [1] 이철영(2019), 『근대 이후 유교식 상례의 변화 연구 - 국가정책과 의례규범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시덕(2000), 「상례, 누구를 위한 의례인가? - 상례 절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민속학 연구』 7, 국립민속박물관
- [3] 고부자(2005), 「민속조사에 나타난 壽衣의 과거, 현



- 황과 과제」, 『비교민속학』 30집, p.340
- [4] 고부자(2005), 「민속조사에 나타난 壽衣의 과거, 현황과 과제」, 『비교민속학』 30집, pp.343~335
- [5] 金淑堂(1925), 『朝鮮裁縫全書』(경성:活文社書店), pp.178~179
- [6] 최연우(2017), 「현행 삼베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 『한복문화』 20권 2호, p.42
- [7] 조선총독부(1935), 『의례준칙 해설서』, p.4
- [8] 조선일보출판사(1941), 『조광』, 「개선장례기준제정의 취지」, p.65
- [9] 조문태·김중범(1955), 『의례규범해설』, 혼상제의례준칙제정위원회
- [10] 보건복지부(1957). 「의례규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의례규범안에 소장된 의례규범안
- [11] 황기진(1962), 『표준의례해설』, 문화당, pp.2~4
- [12] 남수희·박경자(1965), 『예절기준에 따른 예절』, 문교부, 수확사
- [13] <가정의례준칙>, 대통령고시 15호, 1969, 3. 5

신 여 진 (Shin, Yeo-jin)



- 2023년 3월~현재: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재학중
- 2022년 8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문학석사)
- 관심분야: 일생의례, 상·제례학
- E-mail: lovelyruchen@naver.com

이 철 영 (Lee, Chul-Young)



- 2023년 6월~현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2019년 9월~2024년 8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2014년 3월~2019년 2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 2019년 2월: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문학박사)
- 2007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문학석사)
- 관심분야: 일생의례, 상·제례학
- E-mail: welldying88@naver.com